

광주시청 앞 대형 조형물 '기원' 철거·이전 놓고 '고심'

2005년 1회 디자인비엔날레 기념 이탈리아 거장 멘디니 작품 매년 수천만원 관리비·작품 난해... 열린청사 조성 전 존치 고민

'아시아 문화 수도'를 자칭하는 광주시가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아온 시청 앞 대형 조형물(본보 2023년 4월 28일자 1면)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열린 청사' 조성 공사를 앞두고 청사 앞에 있는 조형물 '기원'(PRAYER)의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05년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8억원을 후원받아 광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높이 16.5m, 직경 18m의 초대형 모빌작인 '기원'은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1931~2019)'의 작품이다.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오브제에는 시민 개인의 염원을 담아냈고, 오브제의 걸피는 계절별로 다른 옷을 입게 구성했다는 게 광주시의 작품 설명이다.

시는 2007년까지만 해도 계절별로 4번씩 철거

교체했으나, 2008년부터는 매년 1~2회 정도만 교체하고 있다.

작품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봄·여름·가을·겨울 4차례씩 교체해야 하는데, 1회 교체 비용이 2200여 만원으로 부담스러운 데다 여름과 겨울작품은 빨간색 등이 많이 섞여 있어 시청사 분위기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교체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원은 설치 당시만 해도 광주시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 등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난해한 작품성과 매년 투입해야 하는 적지 않은 관리비 등이 부각되면서 철거 또는 이전 의견이 수차례 제기됐다.

기원은 현재도 수개월째 7개 구성물 가운데 2개 구성물의 천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일부에선 광주시가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대형

공공미술작품 관리 부실과 함께 철거 등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는 일단 다음 달 시작 예정인 '열린 청사' 조성 공사에 맞춰 기원을 철거하거나 비엔날레 전 시관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작품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설치 변경에 따른 작가 측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족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작품 기원의 설치 변경 작업과 함께 청사 1층 로비와 광장 등 효율적 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평화공원의 단절을 해소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작품 기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활용 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거 또는 이전, 존치 등을 최종 확정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돼 있는 모빌식 원형 작품 '기원'(PRAYER)의 7개 구성물 중 일부 구성물의 천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100억 투입 청년부부 정착 유도

6개월 이상 거주시 결혼 축하금 200만원...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전남도가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산양식산업, 기술 고도화 나서야"

전남대, 여수서 심포지엄... 스마트 설비·빅데이터 플랫폼 등 논의

노동집약적이면서 높은 운영 비용이 불거피한 기존 양식시스템을 첨단 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 양식시스템으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식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내수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 비용, 전기요금, 사료 가격 등이 계속 상승하면서 영세한 양식장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양식업의 쇠퇴, 수산물 가격 상승,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는 지난 15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유수식 스마트 양식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했

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수식 양식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 스마트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계설비 구축·양식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교수·연구원, 수산양식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현동 그린수산대표가 '유수식 어류양식 현황 및 문제점', 한정호 에프엔에스(주) 대표가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 기술 개발 방향', 권기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 양식 생산성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지난 2021년부터 완도군 고금면에서 유수식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t의 납치를 생산하고 있는 이 대표는 "현재 양식장에는 기계, 장비가 아

니라 노동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 뒤 "양식장의 고도화를 통해 생육, 질병, 출하 등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내 유수식 양식장은 경쟁력이 낮고 소규모 생산 양식으로 대량생산 체계, 저탄소, 공정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마트 양식 시설은 플랜트 시설이며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추적·예측·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수산물의 생육과 출하에 있어 각 시점마다의 어업인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김석렬 국립 공주대 교수, 송기전 비봉산업 대표, 이우재 (주)블루젠 대표, 장석준 해양수산부 사무관, 전제현 남해수산연구소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원1동 대아아파트 인근 우회하세요

19~23일 송수관로 교체 공사...소태동 우리마트 사거리 도로 차단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동구 지원1동 대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한다"며 교통 혼잡에 따른 우회 운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사는 2차선도로 중앙 송수관로 교체에 따라 동구 소태동 우리마트 사거리 일대 도로를 완전 차단한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차량신호수 배치 및 안내간판 설치 등을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공사에 따른 수계조절로 이달 말까지 흐린 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질 상태 확인 후 수돗물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사는 1946년 매설 이후 누수가 심각한 지원배수지 노후 유입송수관 교체에 따른 것으로, 지원배수지는 충장동, 광천동 일대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박준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로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